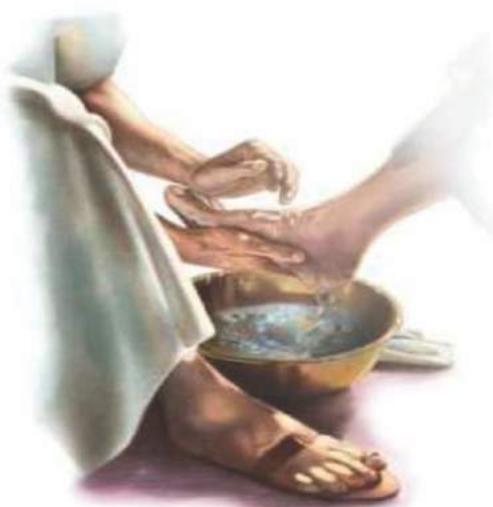


기도의 달  
세상의 소금과 빛된 주간

꿈이 있는 교회  
섬김이 있는 교회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한 교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14-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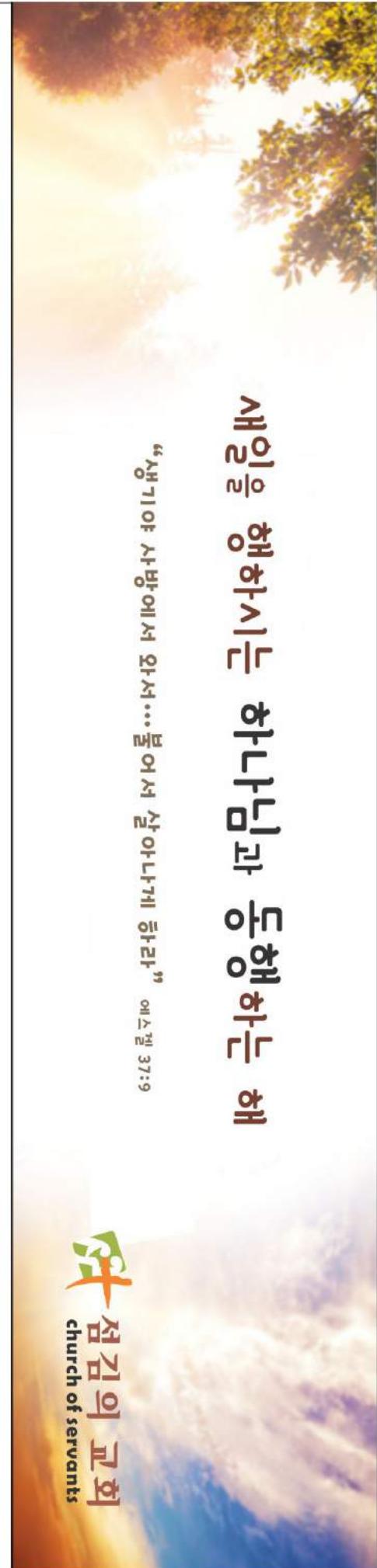


모든상황 막막함도  
초등기습은 떨지마세  
우리주님을 다아시니  
우린그저 기도합나세

섬김의 교회  
church of servants

“성직자 사방에서 오서…물어서 살아나게 하라” 예스겔 37:9

## 새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해



# 예 배 WORSHIP

February 14, 11:30 am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주일예배

## 사역과 행사 안내

### 하나님 앞으로

찬양과 경배 (찬양팀과 함께)

예배기도 / 구은강 집사

주님 가르치신 기도

### 말씀과 결단

성경말씀

호세아 11:12-12:6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기억합시다!**

말씀선포 / 김성배 목사

결단의 찬송 / 찬송 295장 - 큰 죄에 빠진 나를

### 현신과 나눔

봉 헌 / 박진성 집사, 오정은 집사

\* 봉헌찬송 / 나의 생명 드리니 - 4절

### 삶과 세상으로

\* 보냄의 찬양 / 찬송 430장 -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1, 3절)

\* 즉 도 / 김성배 목사

\* 표는 모두 일어 섭니다

예배시간 10분전 휴대전화 점검과 목상으로 준비합시다.

진정한 예배는 교회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 됩니다.

## 금 요 찬 양 예 배

### 합심기도

말씀 : 김성배 목사 / 여호수아 21:43-45, 22:28-34

여호수와를 통한 이스라엘의 결단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환영과  
교제의 식탁 섬김의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즉복합니다!  
예배후 주일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역 / 행시

2월은 “기독의 달”입니다. 2021년의 사명과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충만과 능력을 기도합시다.

1. 2021년 새해를 믿음과 소망으로 시작했습니다.  
2021년 표어는 “새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해”이고  
주제 말씀은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불어서 살아나게 하라”(에스겔 37:9)입니다.  
기억하고 사역합시다.
  2. 소금과 빛된 주간 말씀과 묵상, 기도와 순종, 나눔과 격려를 통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됩시다.
  3. 제직/공동의회 결산과 예산 심의를 위해 예배 후 가집니다.
  4. 사순절 시작 수요일(17)은 Ash Wednesday 이고 4 월 3 일 까지 사순절 기간입니다.  
고난주간은 3 월 28 일부터 4 월 3 일까지입니다.
  5. 온라인 예배 하나님의 초청을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건강하고 은혜로운 예배가 되도록 기도와 지혜를 모읍시다.
  6. 2 세 신앙교육 E-Learning 의 환경 속에 있는 자녀들의 학업과 신앙 교육을 위해  
기도합시다.
  7. 성경 읽기 교회 웹사이트에 매주 성경읽기/문제가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섬김이: 장경미 사모, 성경공부 / 박진성 집사, 웹사이트) 말씀 공부에 힘 더욱 쓱시다.
  8. 2021 사역 2020 년 충성스럽게 섬겨주셨습니다. 2021 년은 새롭게 도약하는  
믿음과 치유와 회복이 넘치는 가정, 교회와 사역이 되도록 함께 섬깁시다.
  9. 목회자 근황 김성배 목사는 15일(월)부터 27일(토)까지 LA의 부모님을 방문합니다.

2월의 사역 - 제직/공동의회(2/14) 세상의 소금과 빛된 주간(14-20)

♥**생일 축하**♥ 정시현(5) 유동숙(24) 구민경(28)

예배와 양육, 말씀과 기도, 교계와 나눔으로 세상과 이웃을 치유하며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교회, 건강하게 성장하는 성김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1.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목회자들의 강건함과 사역을 위해
  2. 박진성 집사의 완전한 회복과 최운정 학생(눈)의 빠른 치유를 위해
  3.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정홍렬 목사가 건강(신장기능)을 유지하도록
  4. 교우들의 사업이 믿음 안에 청지기의 사명으로 운영, 발전하도록
  5. 좋은 English Ministry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보내 주시도록
  6. 주중 성경연구(화 & 목 / 이사야서)의 발전을 위해

기도제목

예배 섬김이

주일예배기도	2/14	2/21	2/28	3/7
	구은강집사	김훈태집사	최선윤집사	고준제전도사
금요예배기도	2/19	2/26	3/5	3/12
	김훈태집사	박진성집사	구민집사	오정은집사
주일헌금위원	2/14	2/21	2/28	3/7
	박진성집사/오정은집사		최내권집사/구은강집사	
주일안내위원	2월			3월
	구민집사		김훈태집사	

## 말씀노트

### 말 쓰 노 트 *Sermon Note*

〈지난주일 말씀요약〉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 호세아 5:15-6:3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회초리를 맞지 않기를 바라나, 실상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 넘어지고, 하나님을 잊고 다른데 마음이 빼앗긴다. 눈과 귀가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못할 수 있다. 이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는다. 매를 맞을 때 끝까지 버티면 안 된다. 최대한 빨리 돌이켜야 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징계로 찢어지니 하나님은 낫게 하신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상처를 입으나 하나님은 싸매시고 치유하신다. 즉, 징계나 심판은 회개와 회복을 위한 과정이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녀를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용서하기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모시고 지성과 이성뿐 아니라 경험과 삶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자. 회개의 진정한 모습인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화의 삶이 된다.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기억하자!** / 호세아 11:12-12:6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지키지 않았다.

---

---

---

---

이스라엘은 앗수르와 평화조약을, 이집트와는 군사동맹을 맺음

---

---

---

---

즉, 이중 계약으로 하나님의 계약을 위반

---

---

---

---

인생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우상들을 땅에 묻고 제단을 쌓았던 야곱

---

---

---

---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안에서 살자.

---

## 말씀요약

###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기억하자! / 호세아 11:12-12:6

심판의 경고 속에 12장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계약위반으로 정의한다. 책임과 혜택을 신중히 따져 계약을 맺는데, 고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원통형의 도장을 사용했다. 성경 역시 계약의 책이다. 하나님이 사람(세상)과 계약을 맺으시고 신실히 실행하시기 때문이다.

애초에 에덴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인류 최초의 계약이 맺어졌다. 사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못한다. 아담과 하와는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시내산 앞에서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맺지만, 온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 우상들을 섬기며, 공의와 정의는 찾을 수 없었다.

하나님과의 계약을 기억하고 돌이키자는 선자자들의 외침은 무시됐고, 이스라엘은 사람의 방법을 추구했다.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앗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었다. 바람은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고, 동풍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열풍이다. 생명이 아닌 파괴를 불러오는 동풍과 배를 채우지 못하는 바람은 아무런 효용가치가 없다. 이스라엘은 우상들을 숭배하며, 쓰러질 사람의 힘을 의지했다. 조공을 바쳐 앗수르와 굴욕적인 평화조약을 맺고 애굽과 군사동맹을 맺었다. 이는 이중계약이며, 하나님과의 계약을 저버린 것이다. 오래 기다리신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에게 그 책임을 물으신다. 즉, 계약위반은 책임이 뒤따른다.

이스라엘은 조상 야곱을 기억해야 한다. 정직한 모습이 부족했지만, 어려운 일을 당할 때면, 야곱은 하나님께로 돌아갔다. 형과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축복을 훔친 후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돌단을 쌓았다. 레위와 시므온이 속임수로 세겜 사람들을 모두 살해하고 큰 위험에 처했을 때, 우상들을 땅에 묻고, 벤앨로 올라갔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조공을 바쳐가며 이웃 나라들과 계약을 맺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대신 물을 담을 수 없는 터진 웅덩이를 만들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하나님 편에서는 아주 불공평한 계약을 맺어주셨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하나님을 바**”의 작은 의무를 이행하면 되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셨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아주 작은 언약의 의무만 지키면 된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면, 해결되지 않고 더 어렵게 꼬인다. 삶에서 어려움을 만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즉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될 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 오늘 하나님의 언약백성으로의 삶을 세워 천국을 삶에서 누리자.

## 말씀적용과 실천노트

*Application Note*

## 삶과 신앙

성화 수요일(Ash Wednesday)부터 부활절 전날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 (2021년 2월 26일 ~ 4월 11일)의 기간이 사순절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길에 동참한다는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이 기간동안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며 십자가 복음을 마음 깊이 새기며 영광스러운 부활절을 준비합시다.

### 이제 선택만이 남았다 – 이 초대에 순종하든지, 거절하든지

하나님은 인류가 받아야 할 죄와 벌을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에게 지우심으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흘린 아들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겨주셨습니다. 오늘도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사 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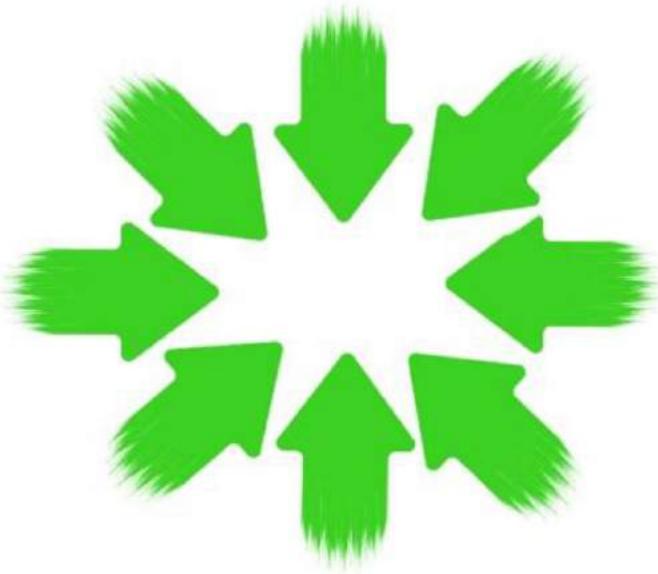
이제 선택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초대에 순종하든지, 거절하든지. 이사야는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사 1:19)

그리고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사 1:20)

여기서는 순종하면 천당에 가고, 거절하면 지옥에 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천당과 지옥을 부인하기 때문이 아니라, 좀 더 실제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순종하면 이 땅에서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행복을 얻게 될 것이요, 거절하면 이 땅에서도 칼에 삼켜지는 불행을 경험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천국과 지옥뿐 아니라 이 땅의 행복과 불행도 이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법정으로 부르시는 이 초대 앞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거절하시겠습니까?

- 이동원 목사, 『어제의 예언, 오늘의 복음』 중



“부지런히 예배드려 말고 열심을 풍고 주를 섬기라.”

로마6:1 12:11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는 교회가 중요하다. 함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김동호 목사, 『크리스챤베이직』 중에서

### 교회를 섬기는 분들

LEAD PASTOR 김성배 목사

WORSHIP LEADER 박진성 집사

BIBLE STUDY MINISTER 고순제 전도사  
장영현 전도사

SUNDAY SCHOOL 김진숙 전도사

## 섬김의 교회는...

- ▶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 하나님의 사랑에 빛진 교회의 사람으로, 섬김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 ▶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 쉬지않고 성장합니다.
- ▶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한 교회와 가정, 개인의 생활을 소망합니다.
- ▶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역과 삶의 영역에서 세웁니다.

## 예배 및 모임 안내

주 일 예배 / LORD'S DAY WORSHIP : SUNDAY 11:30 AM

주 일 학교 / SUNDAY SCHOOL : SUNDAY 11:00 AM

생명의 삶 나눔 / QT SHARING : SUNDAY 10:15 AM

금요찬양예배 / FRIDAY SERVICES : FRIDAY 8:00 P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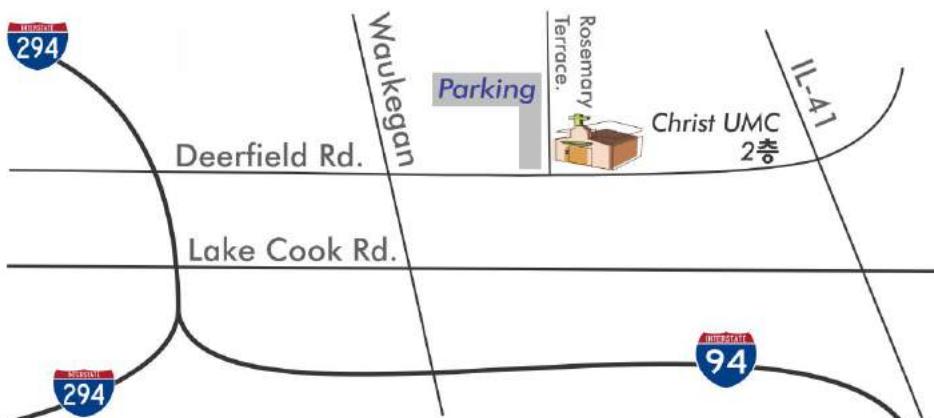
새벽경건회 / EARLY MORNING DEVOTIONS : TUESDAY~FRIDAY 6:00 AM  
SATURDAY 7:00 AM

WOW / WOMEN OF WORSHIP : SATURDAY 11:00 AM

성경공부 / BIBLE STUDIES : SUNDAY 1:30 PM  
WEDNESDAY 7:00 PM

일대일 제자 훈련 / DISCIPLESHIP CLASSES : WEDNESDAY 7:30 PM

## 교회위치 (Our Location)



섬기는 목회자 : 김성배 목사

847-691-7846 / [www.churchofservant.com](http://www.churchofservant.com)  
600 Deerfield Road, Deerfield, Illinois 60015